



목포문학박람회

2023. 9.14.[목]~17.[일] 목포문학관, 북교동 일원

제15회 목포문학상 심사평 목포작가상



목 포 시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목포작가상 심사위원

부 문	분 야	성 명	약 력
목포 작가상 본 상 작품상	시 시조 동시	염창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시조시인협회 부이사장, 광주교대 교수 · 1990 동아일보 신춘문예(시조) 외 · 『그리움이 때로 힘이 된다면』, 『일상들』 외
		이영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5. 경상북도 의성(고려대 국문학 박사, 교수) · 제11회 미당문학상 외 · 왜냐하면 시가 우리를 죽여주니까 (이영광 산문집) 외
		하 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2008년 《시인세계》 신인상으로 등단) · 저서 : 『이것만 알면 당신도 현대시조를 쓸 수 있다』 외 · 수상 : 2011 청마문학상 신인상 외
	소설 희곡 평론 수필 동화	김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 난희 대표 · 수상 : 2007 제1회 차범석희곡상 제10회 여석기 연극평론가상 · 저서 : 『김명화희곡집』 1~4권
		김영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 국문과 연구교수 · 저서 : 『문학과 기억』 외 · 2019 문화일보 신춘문예 비평
		노은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아산문학상 소설부문 대상수상 외 · 작품집 : 『트로피 헌터』, 『다시 100병동』, 『우아한 사생활』 외

□ 목포작가상 [시 · 시조 · 동시] 심사평

심사위원 염창권 · 이영광 · 하 린

[본 상]

올해부터 신설된 부문인 목포문학상 목포작가상(목포에 연고를 둔 문학인이응모 대상) 심사를 맡게 된 시 부문 심사위원들은 투고된 12권의 시집을 번갈아 가며 읽으면서 ABC 등위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로 압축한 다음 논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대상에 대한 표면적인 인식만 있는 시집, 시적 긴장감이 없이 늘어지는 언술로 이루어진 시집, 구체적이고 명징한 모티브나 메시지 없이 감상에 기대어 표현된 시집, 언어에 대한 책임 의식이나 자신감이 없이 함부로 언어를 부려놓은 시집 등이 일차적인 결격 요소로 언급되었다.

‘본상’은 작가적 역량 자체가 한 세계를 내세울 만큼의 안정감이나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응모 자격을 제한한 탓인지 작가적 역량을 내세울 만큼의 시집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일단 당선작을 보류하고, 시적 추구의 열정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숙독을 거듭한 결과, 최종으로 남은 시집은 『물들다』, 『옆구리를 수거하다』, 『소리, 그 정겨운 울림』, 『달빛 한 숟갈』 등의 네 권 시집이다. 이들 중에는 앞의 심사 관점에서 언급한 결격의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상상력에 불과하거나, 직설적인 자기 노출, 주제를 함축하여 상징으로 종합하는 능력의 부족 등이 감점 요인이 되었다.

당선작이 없는 가작을 선하기로 하였다. 남은 시집 중에서, 박동길의 『달빛 한 숟갈』은 ‘목포’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생활사를 담담한 이미지로 환치해 내는 능력이 돋보였다. 생활사에서 길어 올린 상징이라 할 만한 표현의 묘처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 주제의 노출이 아닌 함축으로 향하는 내공도 들여다보였다. 그의 시가 가진 진정성은 「파도의 이력」, 「물결 한 겹」 등을 비롯한 전편에서 발견되거나와 생활 자체가 몸의 땀으로 빚어진 것임을 축축하게 풍겨낸다. 강성희의 『소리, 그 정겨운 울림』은 시조집이다. 이 시집도 목포의 생활사가 정겹게 산견되어 있다. 율격적 갈무리를 통해 주제의 직설적인 노출을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있다. 「시아바다」, 「단풍의 생」 등과 같은 작품에서는 실루엣 같은 생활의 이미지들이 목포라는 정서적 시공간을 떠돌다 사라진다.

이상의 두 시집을 가작으로 선하면서, 작가적 세계의 완성을 기대해 본다. 아깝게 탈락한 분들에게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리라 믿는다.

[작품상]

제15회 목포문학상 목포작가상 작품상 시(시조) 부문에 투고된 작품은 126편(3편씩 42명 응모), 동시 6편(3편씩 2명 응모)이었다. 본상 심사의 방식으로 심사위원들은 미학성과 작품성이 떨어진 시들을 먼저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피상적인 접근이 있는 시, 감상성에 기댄 시,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형상의 시, 시적 긴장감 없이 사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노출한 시, 시의 국면(정황)에 내재된 자신만의 시선이 없는 시 등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최종에서 남은 작품은 「기억의 전당포」 외 2편과 「시를 걷다」 외 2편이었다. 두 응모작 모두 일반화에서 벗어난 개별화된 시적 태도, 메시지를 작품 내에 감각적으로 녹아있게 하는 ‘내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억의 전당포」 외의 작품은 행과 행 사이 불필요한 언술이나 절제력이 부족한 표현 등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거기에 비해 「시를 걷다」 외 2편은 완결성이 뛰어났고, 섬세한 관찰과 직관적인 사유, 자신만이 가진 시선을 보여주었다.

심사위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시를 걷다」를 당선작으로 결정하였다. 「시를 걷다」는 물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 쓰기의 과정을 걷는 행위로 치환하여 탁월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좋은 시의 체질이 밝고 아름다운 자리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둡고 습한 자리(깊은 우물)에서 비로움을 매력적으로 언술했다. “죽음이냐 생존이냐 기로에 설 때 // 죽음 쪽에서 꽃이 피면 시가 된다”라는 시구는 신인으로서의 패기와 대상 인식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목포를 대표하는 뛰어난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아깝게 탈락한 분에게는, 나름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므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 믿는다.

□ 목포작가상 [소설 · 희곡 · 평론 · 수필 · 동화] 심사평

심사위원 김명화 · 김영삼 · 노은희

[본 상]

목포작가상 본상 후보작 소설집(1), 평론집(1), 수필집(1), 동화집(3)을 몇 번씩 꼼꼼하게 심사를 하였다. 목포가 지역의 한 도시가 아니라 역사성과 근대적 장소성을 지닌 도시라는 사실을 본상 심사 대상으로 올라 온 작품집들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수량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작품들이 담고 있는 소명과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스스로 역사적 의무를 짊어진 작품 앞에서는 뜨겁고 무거워졌으며, 현 세대의 감성을 발랄하게 표현한 작품들 앞에서는 함께 즐거워지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동화집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을 수상작으로 결정한 이유는 앞서 말한 역사성과 현재성을 함께 담아내면서도 이야기 구조의 성취 또한 수준 높았기 때문이다.

동화집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 당대 가장 첨예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서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성취를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최초의 여성 조선인 제빵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인종, 계급, 성별, 권력 등 몇 겹의 차별성에 놓인 인물의 서사를 잘 융합시켜 놓았다. 음모를 꾸미는 일본인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순수한 조선 여성의 대립 구도가 자칫 평범함과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겹의 차별구조를 배치함으로써 사건을 현재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작가의 기록치 않을 내력을 짐작하게 했다. 또한 주인공이 서사의 마지막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뿌리치는 과정의 이야기는 마치 『필경사 바틀비』가 보여주었던 무작위의 능력과 가능성을 생각하게도 하였다. 청소년문학이라는 범주에 묶이지 않을 사유의 밑그림을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작품이었고, 근대와 현재라는 시간성을 넘어선 사유의 필요성도 제시하는 작품이었다. 수상을 축하드린다.

[작품상]

올해 목포작가상 작품상을 심사하면서 좋은 수필을 만날 수 있는 건 심사자로 기쁨이었다. 소설(9), 희곡(2), 평론(1), 수필(16), 동화(4)의 작품을 심사위원이 돌아 읽어가며 꼼꼼하게 심사하였다.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전설이나 설화에 기댄 눈에 띄는 우수한 작품들도 더러는 있었으나 응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아쉬움이 남았다. 작품을 응모할 때는, 스스로의 자격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좋은 수필이란 무엇인가. 글에 감동이 담겨 있어야 한다. 독자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진정성은 좋은 수필의 요건이라 믿는다. 당선작 「울몰, 내 마음의 노래」에는 처음 교사로 발령받은 선생의 설렘이 담겨 있었고, 제자를 떠나보낸 가슴 아픈 설움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온 솔직한 문장들이다. 글의 바탕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녹아 있어서 더욱 오래오래 시선이 머물렀다. 우리가 불렀던, 혹은 부르고 싶었던 노랫말도 구슬프게 실려 있었다.

아이 민화의 죽음을 둘러싸고 독자는 함께 아파하며 노랫말을 흥얼거리게 되는 수필, 주검을 묻은 자리라도 알고 싶은 아비의 술주정은 읽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아픔 속에도 인연이 움트고 잔잔한 삶의 이유들은 생성되고 소멸한다. 이런 이유로, 심사위원들은 수필 「울몰, 내 마음의 노래」를 당선작으로 정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좋은 글의 요건을 갖춘 작품도 더러는 있었으나 응모 부문이 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많은 분량으로 형식을 거스른 글은 심사대상에 올릴 수 없었음을 밝힌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탈락한 응모자들에게는 격려를 보내드린다. 수필을 ‘민낯의 문학’이라고도 부른다. 그만큼 진정성과 진실한 깨달음을 끌어내야 하는 문학 장르다. 자신만의 체험이 개인적인 사색에서 머물지 않고, 독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좋은 글로 빚어져 더욱 많은 글이 응모되길 바란다.